출 장 복 명 서

연구과제명 : 부패사범 통제체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출장자 : 연성진 연구위원(교정보호연구실)

출장지 : 미국 NYPD, LAPD, New York University 도서관

출장일시 : 2007년 9월 8일 - 9월 18일

내 용 :

미국의 경찰은 역사적으로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기관이었다. 따라서 부패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들을 시도해 왔다. 이번 출장에서는 과거 약 20여년 주기로 커다란 부패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에 대응했던 경찰당국의 정책적 방식들을 살펴보고 그 이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 경찰관들, 특히 Internal Affairs Bureau (IAB) 담당자들을 만나보고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패문제 접근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NYPD의 경우 IAB는 1993년 경찰부패사건 조사를 위해 구성된 Mollen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IAB에서 중시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사후적인(ractive) 부패통제방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사전적이고 예방적인(proactive) 차원에서 부패를 통제하려는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이 원칙은 부패 당사자들 간의 검은 거래(예컨대, 마약밀매조직과 부패경찰의 거래)가 당사자 누구도 보고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통제시스템의 구축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IAB가 경찰내부의 독립적인 수사조직체로서 구성된 데에는 누구보다도 경찰이 자신들의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었다.

NYPD와 기타 자료들에 의하면 실제로 IAB 이후 다양한 기구적 통합과 함께 경찰력의 증가를 가져왔음에도 실제로 경찰의 비리나 부패관련 건수가

50% 이상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볼 수 있었다. IAB는 일년 365일 하루 24시간 가동체제를 갖추고 비리관련 어떤 제보나 보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리관련자들의 경우 곧바로 청렴성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즉, 청렴성검증 절차는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실제로 혐의가 있는 경찰관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이다. 청렴성검증 절차는 어떤 부서나 임무를 띠고 있는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기도 하였다. 실제도 관련 경찰관들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구체적으로 비디오나 오디오 기기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절차가 이용되고 한 경찰서나 지역지구대에 적어도 일 년에 한번 정도는 이러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었다. LAPD에서도 사후적인 방식보다 예방적인 차원의 부패통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었다.

New York University 도서관을 방문하여 각국의 부패통제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았으며, 뉴욕경찰 관련 과거 부패사건들을 다룬 다양한 자료와 문헌들을 검색해서 연구해 볼 수 있었다.